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생애와 사상

백완기*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V. 사상의 구체적 내용들 |
| II. 성장배경과 생애 | VI. 토크빌 사상의 몇 가지 문제점들 |
| III. 기본사상: 평준화 | VII. 맺는 말 |
| IV. 연구방법 | |

〈요 약〉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05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생을 마감함으로써 54년의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사상적 자취는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다지고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신의 섭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민주화의 흐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통해서 인류에게 축복과 희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피로 얼룩진 폭력정치와 전제정치를 가져와 절망을 주기도 하였다. 토크빌의 주된 관심은 왜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파국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가이다. 왜 자유와 평등은 어떠한 부정적 측면이 있기에 희망과 번영보다는 절망과 두려움만을 남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이 논문은 토크빌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유용하며 그의 주장에는 문제점이 없는가도 살피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성공조건을 미국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실패의 조건은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인 민주주의는 최종의 가시적 목표점이 없이 미완성의 상태에서 완성의 상태를 탐색하면서 전진하는 것이라는 명언은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주제어: 자유, 평등, 인민주권, 평준화, 조건의 평등, 민주주의의 전제성, 다수결의 전제성, 자유와 평등의 관계, 민주사회의 성숙화】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wankipaik@naver.com)

논문접수일(2015.11.10), 수정일(2015.11.18), 게재확정일(2015.12.1)

I. 들어가는 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05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생을 마감함으로써 54년의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사상적 자취는 민주주의 사회를 다지고 구축하는 데 풍요롭고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일상적인 삶은 건강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 그는 평생 우울증 비슷한 병으로 시달렸고, 사상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였고¹⁾, 체질적으로 타고난 고독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야 했고, 정치가들의 야욕에 찬 배신행위들²⁾에 참담한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가 혁명의 피로 얼룩진 광란의 역사 속에서 신음하는 참담함을 감지하면서 번뇌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천재적인 머리와 앞을 꿰뚫어 보는 혜안으로 역사의 흐름은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화의 흐름이며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신의 섭리라고 간파하였다. 아울러 그는 민주화의 흐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통해서 인류에게 축복과 희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피로 얼룩진 폭력정치와 전제정치를 불러옴으로써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토크빌의 관심은 왜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파국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가이다. 왜 자유와 평등은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에 희망과 번영보다는 절망과 두려움만을 남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번영과 발전을 약속받기 위해서 그것의 내용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등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는 자유, 평등, 인민주권 등 민주주의 주요 내용 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면서 고전들을 연구하고 섭렵하기 시작한다.

토크빌은 1831년(26세)에 평생 친구인 구스타브 디 보몽과 같이 미국여행길에 나선다. 9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다. 여행의 구실은 미국 형무소제도 연구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민주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경악과 충격에 사로잡힌다. 그의 의문은 왜 프랑스는 민주혁명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아픔과 회한의 상처만 남기게 되었는데, 미국은 성공적인 민주정치를 향유하게 되는가이다. 왜 프랑스에서는 자유, 평등, 권리, 민주 등이 서로 배타적으로 따로따로 놀면서 폭력과 무질서를

1) 토크빌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머리는 진보주의자이지만 가슴은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2) 예컨대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로 황제등극과 더불어 프랑스는 제2제정에 들어서게 된다.

동반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9개월에 걸쳐 여행기 비슷하게 쓴 「미국 민주주의론」은 고전중의 고전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 책은 단순한 관찰로만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 전에 이 방면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고전을 섭렵하면서 지적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지적 배경과 사색 속에서 이러한 걸작이 탄생한 것이지 9개월의 짧은 여행과 관찰만으로는 이러한 걸작이 탄생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토크빌의 작품은 미국이나 영국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계몽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다. 프랑스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염원하면서 쓴 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론」이다.

본고는 토크빌이 지적한 민주주의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치유의 해답은 무엇이며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민주사회에도 유용성이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그의 이론과 주장에는 하등의 결함과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II. 성장배경과 생애

그의 사상과 철학을 논하기 전에 이것의 바탕이 되는 그의 성장배경과 생애를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1. 성장배경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05년, 7월 29일에 아버지 에르베 드 토크빌과 어머니 루이스 로상보의 셋째 아들로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상류층의 명문 귀족으로서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뿌리 깊은 ‘가톨릭적 기독교 정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귀족적 자존심과 위엄’이었다.³⁾ 이러한 고위층의 신분이다 보니 그의 가계는 혁명의 와중에서 잔혹하고 참담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21세에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는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두 달 후였다. 이들이 결혼식을 마치자 바로 혁명세력에 의해 파리로 압송 및 투옥되어 단두대의 처형을 기다리던 중 혁

3) J. P. Mayer, *Alexis de Tocqueville: A Biographical Study in Political Science*, 1960, Harper & Brothers, pp. 1-6..

명세력의 극단적 과격분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의 실각과 처형으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에 앞서 어머니의 할아버지인 로상보는 혁명재판소에서 루이 16세를 열렬히 변호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토크빌의 어머니는 그의 할아버지와 부모님 및 루이 16세의 주검을 잊지 못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슬픈 노래를 자주 불렀다. 어머니의 이러한 증세는 토크빌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어 토크빌 역시 울적한 삶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독한 삶을 이어간다. 아버지는 왕정복고로 루이 18세를 이어 그의 동생 샤르 10세가 즉위하게 됨에 따라 그 밑에서 여러 현의 지사를 지내게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가 명석하였고 학교 성적은 특출하였다. 부친의 서재는 그의 사색과 생활의 중심공간을 이루었다. 그는 지적 호기심이 남달라 독서량은 그 또래들의 어린아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10대의 어린 나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닦치는 대로 독파하고 섭렵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훗날 토크빌이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의 서재는 그의 상상력과 지적 능력을 키우는데 근원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적 배경은 다시 반복하지만 토크빌로 하여금 사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는 20세 때 법률공부를 마치고 형 에드와르와 같이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방면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 여행 중 시칠리아의 토지소유의 영세화(零細化)를 학자적 안목에서 수려한 문장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요지는 시칠리아의 토지영세화가 시칠리아를 위해서 올바른 제도이냐이다. 그의 결론은 모든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하고 개화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토지의 과도한 세분화는 토지개량의 가능성을 방해함으로써 번영과 발전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무기력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에서는 토지의 세분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사회에는 대토지제도가 바람직하지만 시칠리아에서는 소토지제도가 보다 유용하다는 것이다.⁴⁾

훗날 토크빌이 26세의 나이로 미국 감옥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여행기 비슷한 필체로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 책이 바로 고전중의 고전으로 미국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필독서가 된다. 이 책은 여행을 마치고 2년에 걸쳐 집필을 완료하고 다시 2년 후인 1835년 토크빌이 30세 때에 출판된다. 이러한 걸작이 20대의 청년에 쓰여 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나 토크빌의 어린 시절부터의 지적 탐험의 행로와 사상가들의 사상 섭렵을 알게 되면 수궁이 갈 만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4) *ibid.*, p. 4., .

결작을 쓸 수 있었던 지적이고 사상적인 토양이 이미 축적되고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를 가르친 가정교사는 바로 토크빌의 아버지와 형들을 가르친 르쇠르 신부였다. 그는 가정교사인 르쇠르 신부를 아버지처럼 섬겼고 그로부터 고결한 성품을 이어 받았다. 그는 그칠 줄 모르는 독서욕을 가지고 플라톤, 플라투크, 마키아벨리, 루소, 몽테스키외 등을 종횡무진으로 섭렵하였다. 이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에드먼드 버크 등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을 크게 준 사람은 파스칼이다. 특히 문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문체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관이나 엄격주의가 토크빌의 심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크게 영향력을 끼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몽테스키외이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를 집필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역시 몽테스키외의 「로마 성쇠의 원인」은 토크빌의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의 저술에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생애

그는 20세 때 법률공부를 마치고 왕명에 의해서 베르사유 재판소의 판사에 임명된다. 1831년 26세 때 친구 겸 동료인 귀스타브 뒤 보오몽과 같이 미국 사법제도를 시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다. 여기서 9개월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사법 및 감옥제도를 관찰하고 연구하게 된다. 그러나 토크빌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민주사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여행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출발한 프랑스 혁명이 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희망과 공포와 저주와 살육의 반복적인 연속과정에서 결국 나폴레옹 제국의 설립을 종착점으로 마감하였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사회 분석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실패원인을 규명하고 싶었다.

토크빌이 도착한 당시의 미국은 독립을 한지 50여 년이 지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50여 년 전이다. 북쪽은 상공업 중심지였고, 남쪽은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한 농업중심지였다. 사회생활은 타운미팅을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었다. 잭슨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는 민주주의가 정치의 기본질서로 구축되어 가고 있었다. 잭슨 시대 기승을 부린 엽관제는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가로막았지만 선거 운동자들을 관직에 끌어 들여 대중적 민주주의를 보급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적지 않는 기여를 했다.

그런데 그는 이 여행에서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유래 없이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자신의 축적된 모든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그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이론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쌓은 이론적 배경이나 내용은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안내자의 역할만을 하였지 그는 어떤 이론의 틀에 갇혀서 사물을 관찰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았다. 이어서 종합적이면서도 해석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나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입장 때문에 그는 단순히 역사학자나 사회과학자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그를 역사학자로 보고 어떤 이는 사회과학자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의 설명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집단심리학, 역사학, 해석학 등 여러 학문들이 종합무진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9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2년에 걸쳐서 「미국 감옥제도와 프랑스에서의 적용」(The American Panel System and It's Application in France)이라는 보고서를 쓰고 1833년에 귀스타브 디 보오몽과 공동명의로 출간하게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법조계로부터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

그는 법관직을 사임하고 2년에 걸쳐서 여행의 결과물인 「미국 민주주의론」의 집필을 완성하고 1835년에 출간하게 된다. 이 책은 토크빌에게 큰 명성과 명예를 안겨다 준다. 이 책은 몽테스키외 이후 최초의 명저라는 갈채를 받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로부터 “모든 문호가 개방되는 길을 닦아 놓은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밀은 이 책을 평하기를 “민주주의에 관하여 그것이 근대사회에 나타나는 대로를 적은 최초의 철학적 저서이고, 이 책은 아무리 그것을 수정은 할지라도 장차 어떠한 사상도 그 본질적 원리를 뒤집을 수 없는 책이다. 한편 이 책의 정신과 이 책이 그 주제를 다루는 일반적 방법은 정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새 시대의 시초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극찬하고 있다⁵⁾.

1836년에 프랑스 한림원은 토크빌에게 학술상금으로 8000프랑을 제공한다. 이어서 1838년에는 프랑스 ‘정신과학 및 정치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지명되고 1841년에는 ‘한림원’ 40명 회원 중의 한 사람으로 선출된다.

1828년 그가 23세일 때에 9살 연상인 메리 모틀리(Mary Mottley)라는 영국 여성을 만나 교제 끝에 1836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의 가족들은 이들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하였지만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된다. 그들의 결합은 이성간의 애정적 결합이 아니라 동지적 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여성은 고독과 사색으로 점철된 토크빌의 삶에 인간적 지주

5) *ibid.*, p.33에서 재인용.

(人間的 支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녀는 토크빌에게 영국을 몸소 보여준 삶의 동반자였다. 토크빌이 어느 친지에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친절과 인내의 원천을 가르쳐 주고 나의 영혼을 고양시켜준다”고 밝히고 있다. 매리 모틀리는 토크빌이 세상을 떠난 후 6년을 더 살면서 토크빌이 남긴 유작들을 수집해서 정리함으로써 훗날 토크빌 연구에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다.

토크빌은 정치과학의 개척자로서 자신의 이론과 교리를 현실의 정치에 시험해 보고 싶은 강력한 욕구를 느낀다. 여기서 정치현실에 참여할 뜻을 굳히게 된다. 그는 32세가 되던 해인 1837년에 그의 고향 선거구인 ‘발로뉴구’에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게 된다. 당시 「루이 필립」왕의 수상이었던 「몰레」백작은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토크빌은 ‘독립적 위치’를 원했기 때문에 거절한 바 있다. 선거결과는 낙선이었다. 그러나 2년 후에 다시 도전하였을 때에, 정부의 후원을 거절한 정직한 자세가 알려져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되어 그의 의원생활은 1939년~1951년까지 12년간 계속된다.

그는 천부적으로 학자나 사상가의 체질로 태어났으나 한편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실천에 적용하고 싶은 야심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현실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의회 의원으로서 정치가의 삶을 밟게 된다. 그는 의원생활 동안 시종일관 입헌주의를 표방하는 야당의 자세를 취하면서 일관된 정치노선을 밟는다. 그의 체질은 누구와 쉽게 타협하는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외로움과 격리감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이 강함으로서 의원 생활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한 판단으로 현실 문제를 처리하는데 활발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기아문제, 철도건설문제, 세부르항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문제로 최선을 다 한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는 스스로 설득력 있는 연설가도 아니고 탁월한 토론가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였다. 그가 현실의 정치생활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학자 생활로 접어들어 4년 만에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저작을 남기고 계속해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연구를 하던 중 1856년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는 그의 저서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장에서 이 책은 프랑스 혁명의 기원을 서술한 책이지만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프랑스 혁명의 진전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은 본격적인 프랑스 혁명 연구의 서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학자 생활은 비껴가지 않는 주검으로 마감하게 된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우울증에다 비극적인 가족사⁶⁾, 그리고 몸에 배인

귀족적인 생활패턴으로 살았다. 여기에서 자기의 생활패턴에 어울리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몰밀듯이 닳아 오는 평등사상의 파도 속에서 평생을 고독과 정체성의 갈등 속에서 살게 된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머리로는 진보주의의 삶을 살았지만 가슴으로는 보수주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

Ⅲ. 기본사상: 평준화

토크빌 사상의 기본 원류는 인류의 역사는 평준화(egalitarianism)의 진형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유럽의 역사는 사회계급의 평준화(leveling of social ranks)로 인식되었다. 사회계급의 평준화는 일명 민주혁명으로 불리며 이것의 종착점은 조건의 평등화(equality of conditions)이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의 평등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형성된 조건의 평등상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기본바탕으로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모든 것의 종착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⁶⁾

토크빌이 미국의 감옥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미국사회에 이미 조건의 평등이 확산되고 일반화 되어있는 상태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인류의 역사는 평준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건의 평등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조국인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사무치게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평준화 또는 평등화의 길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급진적 평준화로 혁명의 목표인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민주혁명이나 평등화는 진화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질풍노도처럼 휘몰아 쳤기 때문에 결국 민주혁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따라서 프랑스의 민주혁명은 서광과 영광보다 무질서, 혼란, 살육, 파괴 등으로 점철된 상처투성이의 역사로 기억되게 되었다.

그러면 토크빌의 평준화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평등화 또는 평준화는 중세 말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도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 당시의 보수주의자

6) 토크빌의 부모는 로베스피에의 실각과 처형으로 구사일생으로 처형 직전에 출옥하여 살아남게 된다. 토크빌의 가족사의 비극은 어머니 쪽으로 심하다. 그의 어머니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언니들의 가족들을 잃게 된다.

7)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Author's Introduction*, Alfred A. Knopf, 1994, pp. 3-16.

들은 평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혁명은 새롭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이는 무지의 소치라고 토크빌은 반박한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로서 지금도 도도히 흐르는 신의 섭리라고 지적하고 있다.⁸⁾ 그런데 토크빌은 이러한 민주혁명을 불가피한 역사의 흐름으로 받아 들였지만 긍정적이고 찬미하는 자세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민주혁명은 인류에게 희망과 가능성의 씨앗과 바탕을 제공하지만 무질서와 파괴를 동반하면서 재앙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토크빌은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의 탐색은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평준화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상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이다. 상거래 행위는 권력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돈 많은 재력가들을 정치영역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부의 축적으로 가난해진 귀족들의 특권이 잠식됨으로써 평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상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은 중산계급을 격상시킴으로써 평준화의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이다.

둘째, 계몽사상의 확산과 일반화이다. 인지의 발달과 계몽사상이 확산되면서 고양된 문학, 예술에 대한 취향, 교육을 통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은 사회적 힘이 되었다. 이러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과 축적은 자연스럽게 평준화의 길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층 및 서민 계급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축적하면서 이들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여기에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지식은 필수요소가 되었고 지식을 획득한 하층계급들이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력이 권력과 부의 원천이 됨으로써 출생으로 얻어진 혈연적 가치는 교육으로 얻어진 후천적 가치에 밀리면서 서서히 그 위세를 상실하게 된다. 즉 권력으로 가는 새로운 통로들이 개발되면서 이전의 신분적 통로들은 좁아지고 맥을 못 쓰게 되었다. 아울러 계몽사상의 확산은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진리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창출케 함으로서 평민계급의 권력의 기반과 활로를 더욱 확장시켜 주었다. 그리고 계몽사상에 힘입어 나오게 된 시, 웅변, 상상력의 불길, 깊은 사색 등은 민주혁명과 평등화를 살찌게 하는 첨가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문학작품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무기 창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여기서 무기를 공급받게 된다.

셋째, 귀족작위의 남발과 매각이다. 그 당시 왕들은 재정적자와 궁핍을 매우는 수단으로 작위와 관직을 돈 많은 부자들에게 매각하여 필요 없는 관직이 급증하게 되었다. 예컨

8) *loc. cit.*

대 루이 11세는 귀족작위를 배가시킴으로써 귀족의 권위를 격하시키고 떨어트렸다. 그 후로 계속해서 군주들은 돈을 모으고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작위와 관직을 매각하였다. 이 무렵 네케르는 귀족작위가 딸린 관직수가 4,000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말할 것도 없이 작위와 관직의 매각을 통한 급증은 평준화의 길로 직결된다.

셋째, 왕과 귀족들 간의 상호 견제이다. 왕은 귀족들의 발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귀족들은 왕의 전제성을 견제하고 제약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상호 견제하면서 평민층과 백성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고 인간 힘을 쓰게 되었다. 특히 국왕은 귀족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평민들을 국정에 끌어 들였다.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왕과 귀족간의 세금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국왕과 그의 측근들이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귀족에게도 세금을 매기려 하자 귀족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등법원을 이용하여 대항하게 된다.¹⁰⁾ 이에 왕은 과세문제로 삼부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삼부회의가 혁명발발의 도화선이 된다.

토크빌은 지난 70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큰 사건치고 어느 것 하나 조건의 평등화에 기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가난케 하는데 협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평등화는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토크빌의 역사인식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귀족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평민계급들은 위로 올라감으로써 서로가 만나고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종교가 사회 및 정치 현상의 바탕과 저류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치안정을 이룩하는 데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등화를 담고 있는 민주화는 18세기 중엽까지는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질풍노도처럼 아무런 안내와 제약 없이 폭력성과 광란성을 띄면서 달려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자를 위시해서 어느 누구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어느 누구의 동의 없이 스스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거리의 불량자처럼 모든 악과 무질서를 불러왔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법이나 관행이나 도덕이나 아이디어 등의 동시적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능적 충동에 휘말려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

9) 이용재 역,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163면.

10) 국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고등법원에서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고등법원은 세금에 관한 문제는 삼부회의의 소관이라고 거부하게 된다.

다시 반복하지만, 평등화를 담은 민주혁명은 긍정적 측면만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토크빌 사상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민주혁명이 통제력을 잃고 질풍노도처럼 질주할 때 스스로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람들을 공포로 휘어 감게 된다는 것은 전술한 대로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렇게 폭력과 광란의 역사로 줄달음 칠 때에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토크빌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자신은 민주주의를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인 혜안은 민주주의의 물결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요 신의 섭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 정치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토크빌의 평생 연구과제였던 것이다.

토크빌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후세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역사의 진행은 계급투쟁(class struggle)이라 선언하였고, 튀니스(Ferdinand Tonnies 1855-1936)는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로의 변환과정이라고 설명하고, 베버(Max Weber 1864-1920)는 합리화(rationalization)과정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IV. 연구방법

그러면 주제별로 토크빌의 사상과 이론을 검토하기 전에 잠깐 그의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사상과 이론은 사실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철저한 분석에서 나온다. 그는 여하한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히는 법이 없었다. 그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통찰력이나 직관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러한 연구 자세는 이십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나타난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그는 20세에 형 에드와르와 같이 시칠리아 여행을 하면서 시칠리아 토지제도의 영세화 문제를 관찰하게 된다. 그는 시칠리아의 사회적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이 나라에는 토지제도의 소규모화 및 세분화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토지제도는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소유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론」 역시 철저한 사실의 관찰과 분석 및 관련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 속에서 쓰여 졌다.

그는 학문연구를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학자보다 더욱 정치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 냈다. 그가 「미국 민주주의」를 집필할 때에 집필 도중에 영국

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영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책의 완성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을 집필할 때에도 이웃나라인 독일의 사정과 비교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하게 되고 관계된 자료들을 찾아 분석한다. 혁명의 발발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프랑스 각 지역의 자료보관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자료들을 해부학적 자세로 분석하였다고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¹¹⁾ 기존의 이론을 반박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증거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자세를 분명하게 취했다.

그는 그가 관찰하고 분석한 사실이나 사건들이 장래에 어떠한 사태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진단하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그의 이론과 주장은 예언적 진단과 경고를 내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언적 진단은 그의 사물에 대한 본질적인 냉철한 통찰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예언한 것들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미·소의 냉전체제 도래, 미국의 남북전쟁, 흑백갈등, 프러시아 중심의 독일통일, 프랑스의 2월 혁명 등이다. 여기서 그가 내린 “미·소의 냉전체제 도래”에 대한 예언적 진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세계에는 상이한 출발점에서 떠났으나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큰 국민이 있다. 나는 러시아 민족과 미국 국민을 두고 말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인류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이 양국은 어느새 모든 국가들의 선두 서열에 서게 되었다. 세계는 이들의 존재와 위대성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 세계의 여타 나라들이 성장의 한계에 와 있을 때에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국인은 자연이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 싸우고 있을 때에 러시아인은 인간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자는 무인광야와 야만생활과 싸우고 있는데 후자는 무기를 동원하여 문명과 싸운다. 그러므로 미국인의 정복은 연장으로 쟁취되고 러시아인의 정복은 총칼로 쟁취된다. 앵글로 아메리카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적 이익에 의존하고 국민의 방임된 힘과 상식에 자유로운 활동무대를 준다. 그러나 러시아인은 모든 권력을 한손에 집중시킨다. 전자의 주요무기는 자유이고 후자의 그것은 예측이다. 양자의 출발점은 다르고 가는 길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각기 조물주의 뜻에 따라 지구 반쪽의 운명을 좌우하게끔 운명 지어진 것같이 생각된다.¹²⁾

그가 쓴 「미국 민주주의」나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은 단순한 서술서가 아니라 방법론상으로 새로운 정치과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1) 이용재 역, 전계서, 11면.

12)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1, p. 434.

V. 사상의 내용들

1.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1) 자유

그는 자유를 옹호하고 찬미하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지만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자유까지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는 아니었다. 자유는 자유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번영과 발전과 평안을 가져다주지만 자유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황폐만을 남기고 떠나버린다고 설파하고 있다.¹³⁾ 여기서 그는 자유의 종류에 따라 자유가 끼치는 결과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자유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로서 변덕스럽고 무분별한 자유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로서 질서와 분별을 내포하고 있는 온건한 자유이다¹⁴⁾. 자연적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선행도 할 수 있고 악행도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제약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악을 키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의 동물보다 더 나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자유는 한마디로 평화와 공존의 적이다. 따라서 무절제한 무분별하고 충동적이고 분방한 자유로서 이는 폭력, 혼란, 무질서를 동반함으로써 파괴와 황폐만을 가져 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무정부상태와 균중폭거로 변해 결국은 자유를 포기하면서 독재정부를 불러 오게 된다는 것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자유는 전제와 압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서 분방과 충동과 무책임 속에서 날 뛰다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포기함으로써 결국 다시 독재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나폴레옹의 황제등극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증명한바 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자유는 결국 폭력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은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애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들이 결국 자유 자체를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폭력과 압제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무분별 속에서 날뛰다가 다시 폭력화를 불러 오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자유인 시민적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도덕의 항구적 법칙에 의해서

13) Alexis de Tocqueville, *L'Acient Regime et la Revolution*, 이용재 역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294-295면.

14)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 42.

지배되는 자유로서 공존적 상생과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바르고 선하고 분별력과 질서의식을 지님으로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시민의식과 시민정신을 키워준다. 따라서 공민적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적 자유는 권위의 부정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시민적 자유는 권위를 존중하고 여기에 복종함으로써 존속되고 유지된다. 자연적 자유는 프랑스 혁명이후에 나타난 자유의 모습이었고, 시민적 자유는 미국인들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정착시키는 타운 미팅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⁵⁾

그리고 인간이 자유를 갖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공적인 문제나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토크빌의 지적이다. 여기서 자유는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국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귀결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 이익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탄생되는데 이것이 독점적 단계로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 또 하나의 혁명을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이 토크빌의 주장이다. 프랑스의 1830년 7월 혁명은 중산층 자본가 계급의 이익 확장에 치중함으로써 지나친 빈부 격차를 가져 오게 되는데, 이러한 빈부 격차는 결국 1848년의 2월 혁명을 불러 온다. 그런데 토크빌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맹점을 해결하는데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는 칼 마르크스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맹점의 근본적 치료책은 사유재산과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크빌은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토크빌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마르크스보다 먼저 간파하고 있었지만 그 해결책을 마르크스처럼 사유재산이나 생산수단의 공유화에서 찾지 않는다. 사유재산의 공유화는 인간의 본능적인 소유 욕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 점에서 그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그는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유의 맹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갈 시킴으로서 정치의 사사화(私事化)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한다. 토크빌이 추구하는 자유는 신의 지배와 신의 영구적 율법을 준수하는 제약받고 책임이 따르는 자유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을 '새로운 유형의 자유주의자'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자유는 신의 은총 속에서만 느끼는 '그 무엇'으로서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⁶⁾ 자유는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 논리 이전의 느낌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존귀함과 효용적 가치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고 주장한

15) 한국 사회에서도 4.19 혁명을 겪으면서 번덕스럽고 무절제한 자유를 경험한바 있다. 이러한 자유가 5.16의 군사정변을 불러왔다는 것은 하나도 놀라울 일이 아니다.

16) 이용재 역, 상계서, 296면.

다. 여기서 자유는 평등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평등의 가치와 혜택은 즉시 나타나지만 자유의 혜택과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유는 폭풍의 한 가운데서 난관과 더불어 그 가치가 서서히 발현되고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과 불일치 속에서 질서로 서서히 승화된다.¹⁷⁾ 생산과 번영과 창조를 약속하는 자유의 탄생은 이처럼 험난하고 고된 과정을 거친다. 자유의 혜택과 은혜는 그것이 늘어질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가 제 모습을 지키면서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려면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머물지 말고 공동체와 이웃을 배려하는 공적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고 한다. 그는 자유의 물질적 이익추구를 경계한다. 자유에서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자유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토크빌이 세속적 이해관계나 일사상을 무시하고 도덕과 책무만 강조하는 공덕이상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은 개인적인 덕성을 쌓을지 모르지만 공덕이 되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도덕과 책무만을 강조할 때에 도덕과 책무만을 챙기는 아주 쓸모없고 위험한 시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욕주의적 서적은 수도원 생활을 위한 교과서 이외의 것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는 세상에 해독작용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자유의 모습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서서히 탄생하는 것이며,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규범의 세계 속에서는 탄생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덕적인 규범의 세계에서도 자유는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내용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빈껍데기의 형식적인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가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그 생성과정은 결코 용이한 과정이 아니었다. 토크빌은 미국여행에서 이러한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미국사회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들로 수라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라장 속에서 자유가 형성되고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미국사회에 독재정이 수립된다면 자유에 대한 사랑을 없애는 것보다 자유가 형성되는 관습을 없애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는 생활의 관습 속에서 탄생하지 도덕적 규범이나 외부적 압력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경계하는 자유는 분별이 없고 무책임하고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곧 자유의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의 본질은 그것이 획득되었을 때보다 잃어버렸을 때에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자유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다. 공기는 존재할 때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없어지면 생사를 가르

17)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p. 245-248.

는 지존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유도 있을 때는 그 값어치와 고귀함을 잘 모르지만 잃어버렸을 때 그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게 된다.

2) 평등

토크빌은 사람들의 평등에 대한 열정은 거의 광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평등에 대한 열정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난 시기는 탄압적인 구체제가 내부의 격변 속에서 붕괴되고 신분과 계급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이다. 이때 사람들은 전리품을 덮치듯이 달려든다. 그리고 보물을 놓칠 새라 하는 심정으로 평등에 매달린다. 평등에 대한 열정은 인간의 심장의 한복판에 자리 잡아 꺼질 줄 모른다는 것이다.¹⁸⁾

전통적 계급의 몰락은 신분상승을 정지시키거나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상승을 촉구시키고 강화시켰다. 출생만으로 신분이 결정될 때에는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신분추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즉 출생으로 신분이 결정될 때에는 올라 갈 데도 없고 더 떨어질 낮은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사상이 보편화되고 돈이 신분결정의 기본이 될 때에는 상승의 욕구도 강하고 추락하지 않으려는 욕구도 강하여진다. 다시 말해서 상승의 욕구와 추락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치열하여 진다는 것이다. 평등의 원리는 평등 자체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에 더욱 집념을 불태우게 한다는 것이다.

조건의 불평등(inequality of conditions)이 사회에 널리 보편화되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사람들은 불평등을 자신들의 운명이나 팔자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모든 현상들이 평등의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작은 불평등에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평등이 보편화 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평등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토크빌은 예리하게 지적한다.¹⁹⁾

그런데 이러한 평등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낮은 사람을 평등의식을 통해서 위로 격상시키는 상향적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 내리는 하향적 역할도 한다. 부연하면 평등의식은 평등에 대한 열정을 키워 모든 사람들을 힘이 있고 존경받는 위치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열은 낮은 사람들의 신분상승을 독려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등에 대한 천스럽고 타락한 성향도 가지고 있다. 즉, 아래 있는

18)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II, pp. 97-98.

19)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I, p. 138.

사람들이 노력해서 상승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위에 있는 강자들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 내리려는 마음가짐에 더욱 익숙하다. 여기서 인간들은 자유를 가진 불평등보다는 자유가 없는 노예상태에서의 평등을 더욱 좋아한다.²⁰⁾ 따라서 지나친 평등의식은 결국 너도 못 살고 나도 못사는 물귀신 작전의 함정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평등의식이 신분상승의 상향적 작용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은 신분상승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때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간에는 상호대립과 증오심만 격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등의 부정적 측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이 평등해지면 다른 사람들이나 이웃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는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감도 느끼지 않고 아울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 독자성, 고립감, 소외감 및 무력감 등이 평등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휩싸게 된다. 독자성과 무력감은 각각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독자성(independence)은 자아의존(self-reliance)과 긍지를 키워주지만 무력감(debility)은 때때로 외부의 강력한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때의 외부의 도움이란 자기 동료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강력한 수준의 도움이다. 동료들은 자기처럼 자기를 도와줄 힘도 없거니와 도움을 주려는 동정적인 자세도 없다.²¹⁾ 여기서 드디어 자기를 도와 줄 강력한 힘을 찾게 되는데 이들의 요구로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난 정부가 루이 나폴레옹의 독재정부였다. 이러한 독재정부는 결국 관료가 통치의 중심세력이 되는 관료국가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료국가는 따지고 보면 자유와 평등의 패러독스에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부와 평등의식은 인간의 고립화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조장하는데서 해악적으로 서로 협조한다. 다시 말해서 독재정부와 평등의 사회는 이기심과 고립감 및 분열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독재체제는 인간들의 분열 속에서 그의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독재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추구에만 매진하기를 바란다. 독재정부는 시민들에게 나라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 일에 간섭하려는 것도 싫어한다. 독재자는 공동체의 번영을 도모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독재체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적 행위를 공중미덕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독재 탄생의 제일의 주역이 사적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비극의 역사를 지나친 평등의식에

20)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 53.

21) Alexis de Tocqueville, *op.cit.*, vol. II, p. 294.

서 찾았다.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의 진행과정 중에서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열정이 끊임없이 소멸과 부활의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미숙하고 정제되지 못한 열정이 앞으로 겪게 될 운명이기도 하다. 자유에 대한 열정은 그만큼 시들거나 질식되어 버리기 쉬우며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러나 바로 같은 시기에 평등에 대한 애착은 항상 원래 모습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자유에 대한 열정은 계속 그 모습을 달리 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추이에 따라 줄어들거나 커졌으며 강해지거나 약해졌다. 반면에 평등에 대한 열정은 줄곧 그 모습이 일정했으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완고하고 맹목적인 동일한 목적을 지향했다. 이제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열정을 충족해주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려 했으며 평등에 대한 열정을 조장해주거나 고무해 주는 정부라면 어느 것이나 그 정부가 전제주의로 나가는데 필요한 습성과 관념 및 법률들을 제공해 주게 되었다.²²⁾

토크빌은 전술한대로 역사는 사회적 자유와 평등의 방향으로 흘러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해서 본능적인 선호와 취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보존하고 이것이 탈취당할 때에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평등에 대해서는 그 강도가 더욱 높다. 평등에 대한 열정은 열렬하고 갈급하고 끊임이 없다. 이들은 자유 속에서 평등을 찾는데, 만일에 평등을 찾지 못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예속 속에서 평등을 찾게 된다. 이들은 빈곤을 참고, 복종을 참고, 야만성을 참지만 불평등의 귀족제도와 신분제도는 참지 못한다고 한다.²³⁾

자유와 효용성은 오랜 시일을 통해서 서서히 나타난다. 그리고 자유는 때때로 특정의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만 승화된 쾌락을 제공한다. 그러나 평등의 가치와 효용성은 바로 즉시 나타나고 지속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22) 이용재 역, 상계서, 160면

23)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I p. 97.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싫어하지만 평등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 결국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같등하고 대립할 때에 사람들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평등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평등을 보장해 주면 독재나 전제정부도 가능하다고 보게 된다. 프랑스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평등중심으로 혁명을 이끌었던 점이다. 영국인이 자유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반면, 프랑스인은 평등을 중심으로 이끌었다. 전자의 경우 민주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이성과 중용을 지니면서 서서히 진화할 수 있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과격한 풍랑 속에서 해마다가 결국 독재정부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여론이야말로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불의를 고발하는 인류의 배심원이라고 지적한다.²⁴⁾

그런데 여기서 토크빌은 중요한 내용을 지적한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지라도, 자유 없는 평등의 상태는 평등 없는 자유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⁵⁾ 그는 이 조정의 가능성을 미국 민주주의에서 찾고 있다.

2. 민주주의에 대하여

1)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

민주주의처럼 다양한 의미와 복잡한 내용을 지닌 개념도 없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상황적 변화 속에서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랍시대에는 직접주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의미하였고, 왕정이나 군주정치와 반대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대의제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무분별한 민중이 폭력을 동원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세우려는 것을 민주주의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많은 사상가들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토크빌만 해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확하게 정의한 적은 없으나 상황에 따라서 '저항할 수 없는 흐름' '사회적 혁명' '인민주권' '조건의 평등' '중간계급들의 부상' '국민들의 폭력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²⁶⁾

24) J. P. Mayer, *op. cit.*, p. 62.

25) *ibid.*, pp. 25-26.

26) J. T. Schleifer에 의하면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11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Making of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80, pp. 265-270.

토크빌은 그의 「메모리알」에서 자유와 법 그리고 권리는 사랑하지만 민주주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폭력화된 민중의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일반 대중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겁을 먹고 있었다.²⁷⁾ 이때의 민주주의는 일반대중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폭력화되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대중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토크빌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정치체제였다. 이론상의 민주주의가 실천상의 잔학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혁명 속에서 목격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갖게 된 데에는 민중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의 주장은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혁명으로 민주사회가 들어서면 시민들은 무분별해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고립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기의 독자성과 이익만을 산출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탄생시킨다.

이기심 또는 이기주의(egoism or selfishness)는 과장된 자기사랑(exaggerated love of self)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연결시키고 만사에서 자신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이기주의는 원초적이고 맹목적인 본능에 부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모든 미덕의 씨앗을 시들게 하고 말려 버린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성숙하면서도 냉철한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은 자신의 집단이나 동료들로부터도 격리시키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도 분리시킨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은 세계를 만들고 주변의 세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타락한 감정보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출발하고 비뚤어진 가슴에서 나온다. 개인주의는 서서히 공공생활의 미덕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다른 미덕들까지 공격하고 파괴시킴으로써 결국 이기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민주주의는 문제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동의하에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정치로 인도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이러한 실례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사상을 시발점으로 출발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은 제 갈 길을 달리 하면서 길항관계에 놓이게 된다. 자유는 사익추구에만 열중하는 고립된 개인들을 양산하고 평등은 자유를 외면하면서 정치권력에의 예측관계를 불러와, 결국 민주주의 전체정부를 불러옴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딜레마요 패러독스요 자가당착이다.

27) *ibid.*, 재인용. p. 13.

28)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p. 94-101.

토크빌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가슴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거부 자세를 지녔지만 냉철한 그의 머리는 민주주의는 거역할 수 없는(irresistible) 역사의 흐름이요 신의 섭리라고 간파하고 있다. 토크빌의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바뀌게 된다. 미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는가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민주주의의 성공조건: 미국을 중심으로

(1) 환경적 조건들

환경 조건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미국인들은 민주혁명을 겪지 않고 민주국가에 도달했고 평등화 되어가는 과정을 겪지 않고 평등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다.²⁹⁾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민주적 혁명의 열매를 이미 따 먹고 있었다. 즉 혁명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고 혁명의 과실을 따 먹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혁명의 고통을 겪지 않고 민주주의의 열매를 따 먹고 있었던 것은 이들의 크나큰 축복이었다. 둘째, 이웃에 나라가 없어 전쟁으로 인한 침공이나 정복의 위협이 없다. 따라서 대규모의 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금을 크게 낼 이유도 없고 재정상의 위기도 없다. 셋째, 미국에는 큰 도시가 없다. 작은 도시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서로 배우고, 깨우치고 문제를 상의하는 큰 공회당 같은 역할을 한다. 아울러 영토 안에는 경계가 없고 끝이 없는 광활한 지역뿐이다. 이러한 환경들은 정부 특별히 민주정부의 안전성에 크게 기여한다. 넷째, 미국의 개척자들이다. 이들은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써 삶의 양식이 달랐고 생활규범도 달랐다. 그러나 언어만은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였다. 통일된 언어사용은 쉽게 어울리게 하고 접촉을 활성화 시켰으며 동시에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게 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계급제도나 신분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 서로가 자유스럽고 동등한 상태에서 교류하고 접촉하였다. 이 나라에는 유럽에서 보편화된 가족정신, 명예, 전통, 도덕규범 같은 것들이 없었다. 이들은 너 나 없이 모두 헐벗고 가난하였다. 이들은 오직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돈 벌어서 부자 되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 부로서 이 시대의 미국은 한마디로 장사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였고 거처도 끊임없이 바뀌었다. 모든 것, 즉 법, 여론, 재산 심지어 땅까지도 변하고 있었다. 이들의 직업이나 활동은 늘 가변적이었고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29)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I. p. 101.

돈을 버는데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사업상 질서를 사랑하고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행위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건강한 국민정신이 짝 트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질서와 습관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업상 관습이 정치영역에 스며들게 되어³⁰⁾ 정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업상의 거래처럼 쌍방의 타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생활의 체험 속에서 익힌다. 여기서 공공질서와 공공변영이 함께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2) 제도적 영향

미국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촉진하는 제도적 영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연방제도이다. 우선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연방제도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방, 외교, 화폐, 우편 등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업무는 연방정부에서 처리하게 하고 나머지 일들은 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여, 권력이 중앙이나 특정 인물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권력이 균형적으로 분산되게 된다. 중앙정부가 어떠한 명령이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집행은 중앙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기관들에 위임될 수밖에 없다. 타운십,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주 등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큰 파도를 막아줌으로써 방파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타운십(township) 제도의 보편화이다. 타운십은 일종의 마을회의로서 토크빌은 신의 작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나타난 자연발생적 집회라는 것이다. 미국의 통치 구조를 보면 타운십이 첫 번째이고, 카운티(county)가 두 번째이고, 주(state)는 세 번째이다. 카운티나 주는 인간의 작품이지만 타운십은 신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카운티나 주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타운십은 조잡한 인간들로 구성된다. 조잡한 인간들이지만 타운십에 참석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타운십은 스스로 소멸될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명력은 카운티나 주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타운 미팅은 주민들을 품으로 끌어 들여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향유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여기서 타운회의는 민주정치 근원이요 산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마을은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다.³¹⁾ 미국인들은 작은 마을에

30)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 297.

31)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 68.

더욱 애착심을 갖는다. 이것은 마치 산악인이 산에 집착하는 것과 같다. 이 지역의 통치구조는 이 지역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취향에 맞게 구성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과 일치되고 지역사회의 존재는 개인의 욕망충족으로 인도된다. 개인은 집단 규범의 정신을 내면화시키면서 공공의 질서의식을 생활 속에서 익히고 배운다. 타운십의 인구는 보통 2~3천명이다. 주민들이 직접 공공의 일(public affairs)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회 같은 대표 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행정대행자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게 한다. 이러한 타운미팅은 도시의 대규모화와 전문화 등으로 역할과 기능 등이 쇠퇴해 졌지만 아직도 그 모습과 흔적이 뚜렷하다. 예컨대 지금도 큰 도시인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같은 대도시에는 그 안에 무수히 작은 도시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는 타운미팅의 옛 모습이다.

셋째, 시민결사(civil association)의 활성화이다. 미국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시민결사 만들기를 좋아한다.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실천할 때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꼭 대기에 정부가 있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결사가 있다. 평등의 원리와 결사의 원리 간에는 필연적 유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건의 평등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결사의 역할과 활동 기술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인간의 조건이 평등화 될수록 인간의 개별적인 힘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무력감을 느낀 개별적 인간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 사회와 프랑스 사회 간의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프랑스는 개인이 고립되고 무력감을 느낄 때에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스스로 결사체를 만든다. 전자는 민주적 전제 정부를 불러들이지만, 후자는 대의제 민주정부를 확립하게 된다. 시민적 결사는 정치적 결사(political association)의 출현을 촉구하고, 정치적 결사는 시민적 목표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 정치적 문제로 나타난 결사는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사들은 일시적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바탕을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토론하고, 경청하고, 서로 자극을 주고받게 된다. 한마디로 결사를 만드는 행위는 공생 공존하는 방법을 비용 없이 가르쳐 주는 학교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얻은 교훈들은 자연스럽게 공적 문제에 투입되게 된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위협스러운 자유를 체험하면서, 위협스러운 자유가 덜 위험하게 되는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³²⁾

넷째, 사법제도이다. 사법제도는 민주정치의 과격성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결정적

32)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I, pp. 107-110.

역할을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사법 분야 자체의 속성인 전문성과 질서의식이다. 법의 전문성은 정치 분야의 혼란성과 무분별함을 바로잡는데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법 전문가들은 직업적 성격상 질서의식에 길들여져 있고, 공식성에 대한 취향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방식과 정형화된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자연적으로 혁명적 성향이나 무분별한 감정폭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들은 합법성(legality)을 선호한다. 이들은 전제적 질서(despotic order)보다 무분별한 자의적 권력(arbitrary power)을 더 무서워한다.³³⁾ 미국사회에서 법률가들은 하나의 단체를 이룩하면서 민주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혼란을 중화시켜 주고 평형을 이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⁴⁾ 즉 사법기관들은 민주주의를 바르게 인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은 사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파급되고 있다.

미국 사법제도의 두 번째의 특성은 배심원(jury)제도이다. 배심원은 정치적 기관(political institution)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첨으로 뽑혀 온 배심원들은 사회적 의식을 지니고 온다는 점에서 공화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사회에 안정성, 기동성, 공화적 성격의 조성에 일조한다. 특히 배심원 제도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도 적용될 때 그 파급효과가 크다. 이 제도는 자신이 판결 받는 것처럼 이웃을 판결함으로써 형평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미국 사회에서 법 전문직과 법 행정가들 그리고 배심원 제도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제도적 영향들은 평등에서 불거져 나온 분열성과 고립성 그리고 무력감을 치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토크빌의 지적이다.

(3) 종교적 영향

미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건설하고 구축하는 데 기독교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토크빌은 신교인 퓨리터니즘과 구교인 가톨릭이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퓨리턴의 역할부터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이라는 신천지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들은 본래가 영국에서도 중산층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재능도 뛰어 났으며 아울러 질서의식과 도덕적 품성도 지니고 있었

33) *ibid.*, pp. 271-272.

34) *ibid.*, p. 278.

다. 이들의 이민 목적은 오로지 종교의 자유였다. 이들은 필그림 (pilgrim)이라고 불렸고 퓨리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이 믿는 퓨리터니즘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 이상의 민주주의 이론과 공화주의 이론을 내포하고 있었다. 뉴잉글랜드는 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환상의 땅이었고 여러 가지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실험을 시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치적 독립이 이 지역보다 활성화된 지역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성경의 계명들은 이들의 생활을 인도하고 규제하는 제일의 원리였다. 이들이 지키는 규범이나 제도들은 정부당국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들 스스로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만든 것이었다. 이들의 생활관습은 법규보다 더 엄격하였고 냉혹하였다. 예컨대 1649년에 보스턴에는 긴 머리를 단속하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나타나 장발족이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법규에는 17세기 유럽은 물론 영국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법의 원리들이 담겨 있었다. 예컨대 주민의 공적 행사에의 참여, 세금과세의 투표제, 권력자의 책임성, 개인적 자유, 재산상의 평등, 배심원 제도 등이다. 퓨리턴들의 생활패턴이 미국 전 지역에 확산되고 보편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생활패턴은 미국 전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횡불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토크빌은 가톨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들은 구교인 가톨릭 신앙을 지니고 왔었다. 이들의 신앙심은 열정적이고 진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가톨릭은 반민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토크빌은 이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가톨릭이야말로 인간생활에서 가장 조건의 평등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신도들과 사제밖에 없다. 평신도들은 사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토크빌은 미국인의 종교를 합쳐서 ‘크리스찬니티(Christianity)’라고 명명하고 있다. 크리스찬니티는 내용 면에서는 다양하나 기본정신은 동일하다고 본다. 크리스찬니티는 미국을 탄생시킴으로 애초부터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성격을 띤 종교라고 언명하고 있다.³⁵⁾ 따라서 초기부터 정치와 종교는 견고한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서의 동맹관계는 추구하는 기본정신이 동일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회들은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에는 앞장섰지만 그들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고 개입하는 법이 없었고 법의 제정이나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미국 교회들은 공동체의 일상생활과 습관을 주도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된다. 종교는 행위

35)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1, p. 300.

의 울타리와 한계를 쳐 놓고 국민생활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된다. 한마디로 크리스찬니티는 미국 사람들의 견고한 마음의 바탕이요 철학적 기초이다.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제일의 정치제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다같이 자유와 평등의 정신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고 이것들의 유용성을 끊임없이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크리스찬니티와 자유의 개념은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들은 자유와 평등의 부정적 측면을 치료하고 완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자유에서 나오는 무절제나 이기심 그리고 평등에서 나오는 무력감과 고립감을 치료하고 교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역할은 정치체제의 원활한 작동과 역할을 확보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³⁶⁾ 토크빌의 이러한 사상은 막스 베버에게도 이어진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의 서문에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과학은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서만 생성과 발달이 가능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은 기독교라는 것이다.

(4) 사회적 습속(habits of hearts)

사회적 습속은 오랜 세월 속에서 주위환경, 역사적 전통,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의 영향 속에서 스스로 형성된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습속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하나의 독립된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습속은 국민감정이나 국민성으로 연결된다. 토크빌은 민주정치를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습속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정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인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 습속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과 제도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환경적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³⁷⁾ 사회적 습속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초기의 이민자들은 개인의식 속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발전시켰다. 이들은 처음부터 공동체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식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의식을 발전시켰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이들은 각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서로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특별한 애국심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타운십, 카운티, 주 그리고 국가의 공적

36) 여기에 대해서는 백완기, 「성경과 민주주의」,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참조.

37)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chapter XVII 참조.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열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자기가 거주하는 인접지역의 정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성하고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사회변영이 자기들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변영이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자기와 공동체는 동심일체라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의 변영이라면 자기의 일처럼 헌신하게 된다. 이러한 헌신적 자세는 긍지나 의무감에서 보다는 본능적 사랑(cupidity)에서 나온다는 것이다.³⁸⁾ 이들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럽고 비난 받을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참지 못하고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에 자기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둘째, 준법정신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 미국인들은 법에 복종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그 법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법이 해롭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은 스스로 부과된 필요악(self-imposed necessary evil)이고 잠정기간의 악(evil of transient duration)이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셋째, 생활 속에서 태어난 국민주권이다. 미국사회에서 국민주권은 사상이나 이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은 초기부터 타운십을 비롯해서 전국에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태어난 국민주권은 독재권력에 게 우롱당하는 법이 없다.⁴⁰⁾ 국민주권은 관념적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익히고 습득되었다. 따라서 내용이 없는 허울 좋은 빈껍데기가 아니고 출발부터 알찬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관습에 의해서 익혀지고 법에 의해서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민주권이라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권은 지역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했었다. 국민주권의 기본 사상은 모든 권력의 근원은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신이 우주를 다스리듯이 국민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미국 사회이다. 국민은 모든 것의 원인이요 목표이다. 모든 것은 그들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미국사회는 사회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명구가 탄생하게 된다.⁴¹⁾

이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38) *ibid.*, p. 243.

39) *ibid.*, pp 247-248.

40) Napoleon III세나 무솔리니 또는 히틀러는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탈취한 독제가 들이다.

41)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pp. 55-58.

데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의 하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국가들만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진보할 수 있는가이다. 토크빌의 해답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갖춘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유리하고 비옥한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필수 및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토크빌 자신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일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⁴²⁾ 그는 다수결의 전제와 여론의 폭력성을 미국민주주의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자유의 고귀함은 입헌 왕정에서 배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호적인 조건들을 갖춘 미국 민주주의도 발전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남·북 전쟁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인종갈등을 겪어야 했고, 1929년의 대공황을 겪어야 했고, 오늘날에는 빈부의 양극화, 총기난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이냐이다. 토크빌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필자가 해석하기에는 이러한 나라들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속도가 느릴 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가 걱정한 프랑스는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에는 민주헌정의 하나인 이원집정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크빌은 무엇이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라고 밝힌바 없다. 민주주의는 최종적인 목표도 없고 가시적인 종착점도 없고 단지 미완성의 형태로 완성형을 탐색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 본체라고 보았다.

3) 민주주의의 성숙화

토크빌이 발견한 미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란 조건의 평등화(equality of conditions)와 동질화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떠한 법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일이었다. 생래적으로 타고난 불평등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부의 불평등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지식이 확산되고 자유가 증가하는 비례로 재산의 불평등은 커지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부유한 가문(wealthy families)은 탄생하지 않지만 부유한 개인들(wealthy individuals)은 수없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공동의 수준(common level)으로 수렴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의 수준은 또 쉽게 무너지게 되는데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인간의 자유의 증가와 능력, 노력 및 지식의 차이로 다시 불평등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불평등은 오히려 끊임없이 민주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완전하고 고정 불변된 평등상태(complete and eternal equality)에서 벗어나게 한

42)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II. pp. 261-63.

다. 43) 다시 말해서 능력별로 탄생한 불평등은 민주사회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다. 토크빌의 기본적 입장은 완전하고 영원한 평등의 상태는 민주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능력과 노력을 토대로 한 수월성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지는 합리적인 차별의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귀족사회의 귀족들처럼 연대감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이들의 취향과 관심분야는 다양하고 다채롭다. 이들의 높고 낮음은 항상 가변적이다. 여러 사람들이 늘 교제하고 뒤엎키며 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의 광장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유의지의 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을 돌리는 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법이 없다. 여기서 자기책임의식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이러한 책임의식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킨다. 여기서 자유는 절제와 책임의식 속에서 번영을 약속하면서 신장되고 평등은 합리적 차별로 자리 잡게 된다. 44)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개인주의나 이기심은 ‘올바르게 이해된 이기심(self-interest rightly understood)’으로 승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승화된 이기심은 ‘정확하게 이해된 이기심(self-interest well understood)’ 아니면 ‘계몽된 이기심(self-interest enlightened)’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심이 올바르고 계몽된 모습으로 격상되고 진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이기적 욕구를 추구하는데 본능적 충동 속에서 직접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추구한다는 것이다. 법적 절차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의 요소는 종교적 영향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생활의 지침으로 가르치는 기독교는 이기심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절제와 책임의식을 강조하였지만 도덕 일변도의 금욕적이고 탈속적인 생활 자세는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일상사를 등한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사고나 생활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도덕과 책무라는 이름으로 아주 쓸모없고 위험한 시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욕주의적 서적은 수도권 생활을 위한 교과서 이외의 것으로 사용될 때에는 오히려 해독작용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러

43) *ibid.*, p. 38.

44) 백완기, 「민주주의 문화론」, 나남, 1999, 제2장과 제3장 참조.

한 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덕성을 쌓을지는 모르지만 공덕(public virtue)이 되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⁴⁵⁾ 성숙화 된 민주사회라고 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약화되거나 쇠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러한 이기심은 ‘올바르게 이해된 이기심(self-interest rightly understood)’이나 ‘계몽된 이기심(enlightened selfishness)’으로 승화되어 절제, 배려, 양보 등의 가치로 인도한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인적 이익은 공존적 이익으로 승화됨으로 민주사회를 더욱 활력있게 한다.

토크빌이 미국의 여행기간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전술한 대로 미국 사회 구석 구석에 보편화된 조건의 평등이었다. 이 조건의 평등이 전체 미국 사회의 여론, 법 체제, 통치계급 및 일반백성에게까지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정부영역 못지않게 시민사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조건의 평등화는 여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관행을 창출하고, 기존의 것들은 무엇이던지 변화시키고 수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조건의 평등화는 여론, 제도, 관행 등 모든 것들의 기본바탕으로서 여타의 것들도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종착점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초기에는 상하의 계급구조를 띤 두 개 부류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한 부류에는 돈, 힘, 여가, 고급스런 취향, 향기있는 위트, 예술에 대한 감상 등이 자리 잡고 있고, 다른 부류에는 노동, 촌스러움, 무지, 소박함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는 안정되고, 권력과 영광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계급구조는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을 분할시켰던 장벽들은 무너지고, 재산은 나누어 갖게 되고, 권력은 공유되며 지능의 불빛은 사회 구석구석에 확산되고 있었다.

자유와 평등의식은 일상적인 삶속에서 익혀지고 뿌리내림으로써 민주주의는 견고한 터를 잡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 제국(empire of democracy)은 평화스럽게 구축되어 갔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익혔지 어떠한 사상가나 철학가로부터 민주주의를 전수받지 않았다. 이 점이 프랑스와 다르다. 프랑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계몽사상가나 철학자 또는 문필가들로부터 관념적이면서도 피상적으로 받아 들였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환상적이면서도 뜬 구름 같은 이야기의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 압제에서 벗어난 군중들이 환상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현실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였을 때에 민주주의는 폭력화됨으로서 프랑스 역사에 엄청난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토크빌이 미국사회를 ‘스스

45) J. P. Mayer, *op. cit.*, pp. 101-102.

46)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I p. 123.

로 다스리는 사회'라고 명명한 바 있었는데 이는 이론이나 사상으로 배워진 사회가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념이나 이론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것이 아니라 생활의 필요 속에서 민주주의를 익히고 내면화 시켜 나갔던 것이다.

일반시민들이 공적 사무에 참여할 때에 그들은 형편없이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공적 업무에 참여하게 되면 자존심을 획득하게 되고 세련된 봉사정신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개선책이 끊임없이 제시된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환경의 유리함과 융합되어 민주주의를 보다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진화적 과정은 법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익혀진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성하는 정부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는 정부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정부는 보다 일관되고,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확고적이고, 여타의 일에도 다수의 정부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민주정부는 규칙적이고 시스템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민주정부는 독재정부의 기묘한 통치술을 지니고 있지 않다. 민주정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한다. 그러나 결국은 민주정부는 독재정부보다 수많은 것들을 산출한다. 민주정부의 훌륭한 산출물은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밖에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 정부는 기술이 뛰어나고 능률적인 행정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능한 행정이 산출하지 못한 보다 값진 것들을 산출한다. 그것은 전면적이고 쉬지 않은 활동, 넘치는 활력,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 에너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쉬지 않고 잉태되는 경이감(wonder)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독재정부가 가질 수 없는 민주정부의 최대의 장점이다.⁴⁷⁾

성숙화 된 민주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연하기로 한다.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동질적인 사랑과 존경심을 갖고, 정부의 권위는 존경되지만 그렇다고 신성시되지는 않는다.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과 지지는 맹목적인 열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합리적인 설득에서 나오게 된다. 주민들은 정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고 깨우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이해와 예절 속에서 공동체는 활기찬 작동 속에서 존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사회는 주차장처럼 조용한 사회는 아니다.

민주사회의 성숙화는 2차(secondary)집단이나 매개(intermediate)집단의 활성화에 의해 촉진된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사람들은 초기부터 결사를 조직하는데

47)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 52.

본능적 취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들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때로는 서로가 견제함으로써 정부안에서도 권력의 분산과 분업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중과 중앙정부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다원주의 사회를 이룩하는데 초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성숙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이다. 민주사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행복하게만 움직이는 사회는 아니다. 항시 해결하고 고쳐야 할 사항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잘못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바로잡고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의 장점이고 성숙화 된 모습이다.

4) 민주정치 문제점: 다수파의 전제성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수파의 전제(tyranny of majority)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수파의 전제는 다수파의 절대적 주권(the absolute sovereignty of the majority)이라고도 표현한다. 다수파의 전제적 권력은 군주의 절대적 권력보다 두렵고 위협하다는 것이 토크빌의 입장이다.

토크빌은 미국 사회에서의 다수파의 권력은 전제적 폭력과 비슷한 위치 아니면 그 위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바탕이 되는 사상은 다수파는 국민을 대표하고 소수의 의견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이다. 다수자의 의사는 도덕적 권위까지 지니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수자는 특정의 개인보다 지능과 지혜가 우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질(quality)의 개념보다 수(number)의 개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토크빌은 다수파의 상대적 우월성은 받아 들여야 하지만 절대적 우월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다수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역설하고 있다. 절대적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군주가 되었던, 귀족이 되었던, 다수파가 되었던 어느 누구도 절대적 권력을 소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크빌은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최악이요 위험물이라고 보았다.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과 행사수단은 그것이 국민에게 주어지든, 왕정이나 귀족계급에 주어지든, 민주권력의 공화정에 주어지든, 학정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사심 없이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⁴⁸⁾

그리고 정치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권력이 다른 하나의 권력에 우월하도록 인정되고 용인되어야 하나, 이러한 우월한 권력일지라도 지나침의 도를 순화시키고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때에 자유는 위협 받게 되고 사회정의는 쇠미해 진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견제되고 분산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수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다수자의 지혜는 소수자의 의견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등의 원리도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지혜가 평등하다고 생각할 때에 다수자의 지혜가 소수자의 지혜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자의 이해관계는 소수자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수(number)가 질(quality)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다수의 힘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절대군주의 힘보다 더욱 강하고 영향력도 세다고 토크빌은 보았다. 다수는 다수의 이름으로 주변에 무서운 장벽을 친다는 것이다.⁴⁹⁾ 이 장벽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는 것이다. 이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속된 비난에 휩싸이게 되고 정치적 행보는 차단된다. 다수의 의사는 자유의 억압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유스러운 창의적 사고는 자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나 예술가가 나오기 어려운데 이는 다수의 압제와 무관하지 않다.

다수의 횡포는 자유의 구속을 끝나지 않는다. 모든 정치기관들 중 의회가 가장 다수자의 의지에 지배되는 기관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권력에서 안전성과 독립성을 빼앗아 가고 그들의 변덕에 복종케 한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를 취한다. 이른바 법의 변동성이다. 법이 수시로 변동하면 정치는 물론 행정도 불안정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30년 이상 존속된 법은 거의 없다고 한다.⁵⁰⁾

토크빌은 다수파의 전횡에 이어서 민주정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적 권력의 현주소는 다수파의 의사라는 점에서 여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론형성의 근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치적 균중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론의 변동성과 유동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여론의 고정성과 확일성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계하였다. 여론이 고정화되면 창의적이고 개혁적 사고가 위축된다는

48)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vol. I, p. 260.

49) *ibid.*, p. 264.

50) *ibid.*, p. 260.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다수결의 전제성을 순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토크빌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앞에서 미국 민주주의 성공조건들을 검토한 바 있다. 제도적 성공조건들로 연방제도, 사법제도 등을 고찰한 바 있다. 토크빌은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이 다수결의 전제성을 순화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선 연방제도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에 권력을 분할시킴으로 다수결의 횡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다수를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집행에 들어 갈 때에 그 집행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지방기관들에 위임하게 된다. 이때 지방기관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기능의 분할과 정책의 집행과정 속에서 다수의 전제성은 완화되고 희석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법의 전문성은 민주정치에의 과격성과 무분별한 결정을 막아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배심원 제도이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사회에 안전성, 공화성, 동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다수파의 전횡성이 인식되면서도 미국사회에서 용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크빌은 이것을 귀족사회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귀족사회는 태생적으로 다수파가 지배자가 될 수 없다. 다수파가 지배자가 되려면 귀족사회자체가 무너져야 한다. 미국사회는 처음부터 동일한 계급을 지닌 사람들로 출발하였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고정되고 불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항시 변동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들은 비록 현재는 소수자편에 있을지라도 미래는 다수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다수자의 전제성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5) 시민혁명이 민주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권리, 인민주권 등을 내포하는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민주정치를 향해서 출발했으나 성공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벽에 부딪치고 만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치적 및 행정적 중앙집권화로 모든 권력이 군주 1인에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지방이 누리던 자유는 흔적조차 소멸되어 버렸다. 국왕의 통치가 각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뻗어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심지어 지방의 소규모 도로 사업까지 관장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화는 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혁명 전부터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다. 혁명은 이러한 중앙집권화를 더욱 다지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중앙집권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도읍지에 불과했던 파리는 프랑스 자체가 되다시피 하였다. 권력,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인구 등 모든 것들이 파리로 집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화는 어떠한 정치단체나 정당의 활동도 용인하지 않아 민주정치의 기본인 지방자치나 분권화가 숨 쉴 수 있는 숨통까지 막아버린다. 군주가 임명한 지사나 지사 대리인이 지방의 모든 일을 처리하여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모여서 일을 처리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1인 독재의 전제정치 소멸은 결국 또 하나의 독재자를 불러 오게 마련이다. 프랑스에 비해 영국은 일찍부터 지방분권이 활성화 되어 민주정치의 바탕을 다지게 되었다.

둘째, 민주주의를 실천 속에서 배우지 않고 사상가나 철학자 및 문사들의 자유분방한 이론을 중심으로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혁명의 계획은 계몽된 지식인들에 의해서 준비되었으나 그 실천은 계몽되지 않고 무식하고 거친 계급들에 의해 추진됨으로서 그와 같은 혁명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얼핏 보면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용이 빈약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외형적으로는 인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나 현실의 세계에서 실천에 옮겨졌을 때에는 잔혹성을 띄게 마련이다. 프랑스 혁명이 살육과 폭력 등의 유희의 역사로 줄달음치게 된 것은 바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을 등에 업고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쁜 제도나 법들을 하나하나씩 서서히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일시에 전체를 공격하고 박멸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과 대조적이다. 미국인들은 현실의 필요 속에서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다. 이들은 모여서 의논하면서 하나하나씩 따지고 점검하면서 민주주의를 익히고 배웠다. 프랑스인들은 민주주의는 실천을 먹고 자라지 이론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프랑스인들은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면서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였다. 이 점에서도 영국인과 대조를 이룬다. 영국은 1640년 청교도 혁명 이후로 자유를 목표로 민주혁명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반면, 프랑스는 1879의 혁명을 기점으로 평등을 중심으로 민주혁명을 이루려고 하였다. 평등이 자유보다 과격하고 독재와 친화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경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진퇴의 갈피를 잡지 못하였던 것은 평등의 편을 들면서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⁵¹⁾ 특히 평등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주장될 때에는 무모함과 급진성 및 폭력성을 띄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진화적 정착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추진될 때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만하게 질서를 형성하는 정착화의 길을 걷지만, 평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때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적

51) J. P. Mayer, *Alexis de Tocqueville: A Biographical Study in Political Science*, Harper & Brothers, 1960, p. 94.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질서 속에서 자리 잡기가 어려웠다. 프랑스인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뿌리 깊고 오래된 증오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불평등에 대한 격렬하고 꺼질 줄 모르는 증오심은 민주정부 수립에 크나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토크빌의 지적이다.⁵²⁾ 평등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결국 독재정부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 토크빌의 지론이다.

프랑스인들이 자유보다 평등을 중요시했다고 해서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들도 자유를 추구하고 혁명 초기에는 자유 속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인민의 독재와 무질서 및 혼란 속에서 자유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유가 혼란과 무질서 및 인민독재를 동반하게 되자, 자유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자유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질서를 잡아주는 이전의 독재보다 더 무서운 또 하나의 독재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자유에 대한 실망에 더하여 평등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합쳐지면서 프랑스는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 프랑스 국민 자신의 국민성도 민주주의와 친화적 모습을 띠고 있지 않았다. 토크빌은 오랜 시간 조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하면서 영국의 경우 역사적 전통과 국민성 자체가 민주주의에 친화적이었음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전통이나 국민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우선 귀족들의 생활습관과 의식구조도 달랐다. 영국의 귀족들은 평민계급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는데 프랑스 귀족들은 평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고 그들과 분리되는 울타리를 치면서 살았다. 이들은 중산계급이 돈만 밝히는 속물들이라고 멸시하고, 자기들 내에서도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서 살았다. 귀족 출신인 토크빌 자신도 이러한 생활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앞에서 토크빌가의 가풍을 소개할 때에 한 가지 특징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변화무쌍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쉽게 부화뇌동하고 영웅주의를 숭상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토크빌은 프랑스 국민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차고 모든 행동마다 극단적이며 원칙보다는 감정에 휩쓸리고 항상 기대치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행동하는 국민이 달리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일상적 생각과 취향은 아주 변화무쌍해서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도 낯선

52) 이용재 역, 전계서, 357면.

존재가 되어 버리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보고도 외국인만큼 쉽사리 놀라곤 한다....기질적으로 거친 프랑스인은 주요시민의 자유롭고 잘 짜인 통치보다는 군주의 자의적이고 심지어 난폭한 지배에 더 잘 적응한다. 오늘은 권력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지만, 내일이면 가장 순종적인 국민도 결코 따라 잡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권력에 봉사한다. 저항하지 않는 한 한 가닥의 실로도 그들을 움직일 수 있으나, 일단 저항의 사례가 주어지기만 하면 아무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 통치자들이 흔히 오판을 해서 때로는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너무 무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프랑스인은 유럽에서 가장 탁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국민이라라. 프랑스인만큼 언제나 찬미와 증오와 연민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또 어디 있겠는가?⁵³⁾

프랑스인의 이러한 돌발적이고 격정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혁명을 민주혁명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때의 프랑스 국민은 분별력이 없는 군중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 시민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무분별한 군중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폭력화되고 반대로 예측화 될 수도 있었다. 구체제를 일소하면서 새로운 지배자요 승리자로 등장하지만 자율적 시민의식의 결핍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지 못한다. 그들은 지배자로 등장하지만 전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피지배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국민이나 압제적 질서에서 갑자기 벗어나게 되면 폭력화 될 수 있는 군중이 되기 마련이다. 프랑스 국민들이 지배자로 거듭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 토크빌이 경험한 미국인들은 각지에 모여든 처음부터의 자유인이었다. 그렇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계급도 아니었다. 필요에 의해서 이웃들과 협력하면서 살게 되었고 여기서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된다. 이들은 지배하지 않으면서 지배하게 된다. 즉 스스로 다스리는 지배자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데 다시 반복하거나 프랑스 국민은 지배자로 등장하지만 자율적 시민의식의 결핍으로 지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토크빌이 체험한 프랑스 국민과 미국 국민은 자율적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성과 연결된 문화결정의 산물인가이다. 토크빌은 문화는 민주주의의 생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이지 결정인자라고 지적하지는 않았다. 국민성의 내용 여하에 따라 민주주의의 생성과 발전의 속도는 다르다는 것뿐이다. 여하튼 민주주의의 생성발전을 문화와 연결시킴으로서 정치문화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 놓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상은 후에 알몬드와 베버의

53) 상계서, 361-362면.

결작인 Civic Culture 의 탄생을 유도한다.

VI. 토크빌 사상의 몇 가지 문제점들

우리는 이상으로 토크빌의 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살펴보았다. 그는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운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과연 민주주의 정착화에 얼마나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좀 더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적 자세이다. 그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하면서도 결국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통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끝까지 다르다는 것을 외면하였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토대로 개인적 자아실현을 추구함으로써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개인주의의 본체는 자아(self)의 발견이요 실현이다. 모든 가치의 출발점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 개인주의의 본체이다. 민주주의의 중심 내용인 다원주의는 개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토크빌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도 그 출발점은 '자아의식'이다. '개인적 자아'를 떠난 자유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가 강조한 '공동체 의식'도 '자아의식'에서 출발해야만 그 뿌리가 튼튼하고 기반이 견고해 질 수 있다. 처음부터 공동체 의식으로 출발한 공동체는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지속적인 존속을 견지하기 어렵다. 개인의식을 토대로 해서 성립되고 구축된 공동체의식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은 '고립적 존재'로 태어나지만 자연스럽게 관계적 존재(relational being)로 발전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명명한 바 있는데 이는 관계적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이다. 즉,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웃을 배려하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한다. '개인적 자아'는 결국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존적 자아'로 진화 발전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존적 자아 속에서 민주주의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공동체의식으로 출발한 공동체의식은 결코 민주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공동체의식으로 출발한 민주주의는 결국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수 없이 보여주었다. 파시스트 정권, 나치정권, 공산주의 정권 등은 그 출발점이 국가요 공동체요 공산당이였다. 그리고 토크빌이 그렇게 경멸한 이기심(selfishness)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에 의해서 예정 조화됨으로써

국부 창출의 원형이라고 갈파한 아담 스미스의 말을 새기지 않았다. 각 개인의 이기심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결국 상생의 통로를 발견하여 공존의 이익으로 발전 승화되어 간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기심은 가치창조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토크빌은 자유와 권리는 존중하지만 평등과 민주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는 자유에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자유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도 없고 향유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에 책임성과 도덕성을 내포시키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는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가 물질적 이득이나 혜택과 연결되면 이는 추하고 혐오스러운 자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추구하는 자유는 물질적 혜택과 무관한 자유 자체로서 그것은 신과 법의 유일한 지배 아래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호흡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자유에서 자유 이외의 것을 찾는 자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자유인이고자 하는 진실한 취향 바로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다.⁵⁴⁾ 자유에서 물질적 혜택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의 주장은 인간생활의 실질적 내용을 무시한 환상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도 미국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에 돈벌이에 급급한 미국인들의 생활 자세를 민주정치를 확립하는데 기여한바 적지 않다고 피력한바 있다. 즉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고 다지는데 물질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가 자유를 설명할 때에 물질적 이득과 연계되는 자유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근본적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발현한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가 절제 없이 무한정으로 질주할 때에 사회주의 혁명을 불러온다고 확신하면서 프랑스의 2월 혁명을 예언한바 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그렇다고 그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용납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사회주의자들과 거리를 둔다. 이 점이 전술한 대로 마르크스와 다르다. 토크빌이 자본주의와 그것의 산물인 물질주의(materialism)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밝힌 것은 옳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력과 긍정적 측면을 외면한 것은 그의 이론의 편협성을 면하기 어렵다. 자본주의는 근대 문명의 중심 추를 이룩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정하면서 힘찬 진화의 길을 걸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토크빌이 주장하는 자유는 '새로운 유형의 자유(a kind of new liberal)'로서 신의 은총을 입고 신의 의지(will of god)에 복종하는 위대한 심성의 소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자유는 운신의 폭과 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한정되어 있어 소수

54) 이용재 역, 전계서, 295면.

의 사람들에게만 통용될 수 있는 자유였다. 한 마디로 귀족적 자유주의자가 내세우는 귀족적 자유였다. 이러한 자유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향유하는 자유를 경멸함으로서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를 확립하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토크빌이 주장하는 자유는 잘못하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행할 수도 있다.

평등 또한 출생에 의한 신분적 차별과 불평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능력별 불평등과는 조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신분적 차별이 없어질 때에 어차피 인간은 상승 욕구에 의해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나타나는 능력별 불평등은 합리적 차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서 평등은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배분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으로서 이해될 때에 인간생활의 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서 가치창조의 바탕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주권개념도 국민주권(sovereignty of people)과 인류주권(sovereignty of mankind)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 역시 내용이 없는 개념으로서 실천상의 어려움을 노정한다. 국민주권이 인류주권으로 거듭나고 승화되어야만 민주주의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는 관념상의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 권리, 평등, 민주 등이 각각 분리된 개념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마디로 이러한 개념들은 각자의 논리에 따라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키고 조절하면서 민주주의 정치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 및 평등을 내걸고 발발하지만 결국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향 없이 해매이다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터득하고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혐오감은 미국 민주주의를 체험할 때까지 계속된다. 토크빌이 그토록 경계하고 위험시한 무질서와 혼란은 질서가 탄생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가 높이 평가한 자생적 질서는 무질서와 혼란을 전제로 탄생하게 된다. 처음부터 질서로 출발하는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도 갈등과 대립 속에서 형성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 질서는 탁류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맑은 물속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변하게 된다.⁵⁵⁾

넷째, 다수의 의사는 전제성 또는 폭력성을 띠고 있어 다수결 제도는 민주정치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수정치는 중우정치가 되기 쉽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55) 상계서, 296.

56)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다수결의 제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다수의 의사는 불변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소수의 의사는 상황에 따라 다수의 의사로 변화될 수 있다. 토크빌이 경계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여론은 파도처럼 쉽게 출렁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토크빌이 진단한대로 고정적이지도 않다. 여론은 일종의 민심이다. 민심은 얼핏 보면 백성들의 평범한 생각들인 것 같지만 이는 천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은 그 시대의 상황적 정신을 대변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토크빌이 경계하고 위험시한 다수결이나 여론은 자동성의 원리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VII. 맺는 말

토크빌은 역사의 흐름에 대해 예리한 통찰을 하면서 평준화를 통한 민주주의 물결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섭리라고 갈파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좋은 싫든 인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섭리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질서, 혼란, 폭동, 약탈 등으로 오해한 반동적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민주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명제라고 알려 주었고, 동시에 민주주의에 광신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는 준비 및 전제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큰 재앙을 낳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양자에 대한 교훈적 경고는 지금도 살아 있는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관해서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성찰적(reflective)이고 숙고적(deliberative)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어렵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에 동반자의 역할을 하여 주지만, 쉽고 가볍게, 그리고 함부로 접근할 때에는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는 것을 토크빌은 알려주고 있다.

토크빌은 오늘날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분류되고, 사상이나 이론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그만큼 그의 이론이나 사상이 방대하고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도 토크빌 자신도 서로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자주 함으로서 보수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 다 같이 위로를 받는 희극이 벌어지게 하기도 한다.

토크빌 연구의 내용들을 두 개의 큰 줄거리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면 미국에서는 공화주의 입장에서 토크빌을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프랑스의 지성계는 자유주의자의 전

형으로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토크빌 자신이 자기는 공화주의자라고 혹은 자유주의자라고 밝힌바가 없다. 그의 사상은 탄력성과 적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원되고 원용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메이어(J. P. Mayer)와 레이몽 아롱(R. Aron)은 20세기 초 자유민주주의 위기현상 즉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태리의 파시즘을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설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토크빌의 무책임한 자유와 과격하면서도 무력한 평등 이론에서 밝혀내고 있다. 하이에크(F. Hayek)는 그의 명저의 하나인 *Road to Serfdom*의 제목도 토크빌의 연설문에서 따 왔다. 최근의 마이클 샌들(M. Sandle)이나 로버트 퍼트남(R. Putnam)은 양극화 문제나 민주주의 활성화문제를 토크빌의 공화주의 이론에서 찾고 있다.⁵⁷⁾

오늘날에도 토크빌의 민주주의의 함정에 대한 경고는 선·후진국들을 막론하고 유효하다. 특히나 신생국들이나 발전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들의 지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더 할 나위없는 값진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민주주의 함정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자유와 평등은 무책임성, 과격성, 교조성, 무절제성 등으로 점철되어 있어 질서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위대성은 민주주의의 결함과 함정을 지적하면서 그 치유의 처방책을 바로 민주주의 내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결함을 지니면서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완성의 정치체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항시 미완성으로 완성을 탐색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순탄일로를 걸으면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으면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본래의 모습이다. 오늘날 선진의 민주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도 민주주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 즉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에서 공공적 이익도 생각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으로 탈바꿈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인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제도적 준비를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크빌은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 물론 그가 내린 진단과 처방이 전부 타당하고 바르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견고한 바탕 속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

57)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 토크빌 다시 읽기”·「서양사연구」 제40집, 2009 63-91면을 참조할 것.

으로 행진하도록 인도한 것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의 무책임한 자유와 과격한 평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민주질서의 끊임없는 발전과 영구적 존속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이론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자라며, 전제군주제나 귀족제도는 최종의 목표나 종착점이 있지만 민주주의는 이미 정해진 가시적인 최종의 목표점이나 종착점이 없이 스스로 이상적인 모습을 탐색하면서 무한정으로 발전하고 진행한다는 명제는 민주주의의 본체를 규명한 통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2). 토크빌: 자유민주주의의 결함과 그 보완의 모색. 「계간사상」, 제54호. 사회과학연구원.
- 방문숙. (2003). 토크빌의 귀족적 자유주의의 정체성을 찾아서-이중성의 지적 기원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0집. 이화사학연구소.
- 백완기. (1994). 「민주주의 문화론」. 서울: 나남출판사.
- _____. (1999). 「성경과 민주주의」.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신문수. (1996). 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사회비평」, 제 16호. 나남출판사.
- 이용재. (2009).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 토크빌 다시읽기. 「서양사연구」, 제40집. 한국서양사연구회
- 홍태영. (2001). 토크빌(A. de Tocqueville)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한국정치학회.
- Brogan, Hugh. (2007). *Alexis De Tocqueville: A Life*. New Haven. U.S.: Yale University Press
- Hadari, Saguiv A. (1989). *A Theory in Practice: Tocqueville's New Science of Poli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mberti, Jean-Claude. (1980). *Tocqueville and the Two Democrac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inz, Juan. (1997). Some Thoughts on the Victory and Future of Democracy. In Axel Hadenius(ed.), *Democracy's Victory and Cri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sfield, Harvey C. (2010). *Tocquevill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yer, J. P. (1960). *Alexis de Tocqueville: A Biographical Study in Political Science*. New York,

U.S.: Harper & Brothers.

Schleifer, J. T. (1980). *The Making of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Tocqueville, Alexis De. (1994).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U.S: Alfred A Knopf, In.

_____. 이용재 역. (2013).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L'Ancien R'egime et la R'evolution*)」.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ABSTRACT

Alexis de Tocqueville's Life and Thoughts

Wanki Paik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ocqueville's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to obtain an exact understanding of his thoughts on social, political and historical problems. He perceived the flow of history as the march of the egalitarianism which began to emerge from the 12th century on that had then come to be irresistible in addition to more prudent forces in Western Europe.

Egalitarianism had grown, sometimes slowly, sometimes rapidly through seven hundred years in Western Europe and finally resulted in the "equality of conditions." The "equality of conditions" entailed democracy characterized by human rights, liberty, equality,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Tocqueville confessed that he accepted democracy with his head, but refused it with his heart. He analyzed the advantages as well as the disadvantages of democracy. He warned anti-democratic royalist conservatives that democracy could not but be accepted because of the irresistible flow of history, but at the same time reminded pro-democratic radical liberals that democracy could properly work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Liberty brings prosperity only to the people who can keep it, but it gives irresponsible people enormous causalities. People usually prefer equality to liberty to the extent that they throw away the latter. People intoxicated with equality fond of living alone without any connections with their neighbors usually fall to isolationism and powerlessness. Such people naturally search for a strong power on which they can rely. Equality eventually comes to bring dictatorship. This is called the paradox of democracy. His arguments continue to indicate that the vital defect of democracy is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ocqueville's thought really contributes to finding the workability of democracy by indicating its defects.

【Keywords: Egalitarianism, Equality of Conditions, Liberty, Equality, Democracy, Tyranny of Majority Rule】